

월/요/광/장

고영진



국밥과 옛으로 유명한 창평 면소재지에 가면 돌담길들이 많다. 녹을과 돌로 섞어 만든 이 돌담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아늑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준다. 꼬불꼬불 짚집마다 연결되어 모두 10km에 달하는 이 자연친화적인 돌담길을 걷다보면 잠시 복잡한 세상사를 잊기도 한다.

이 창평의 돌담길이 지난달 문화재청에 의해 다른 영·호남 9개 마을의 돌담길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전문적인 장인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세대를 이어가며 만든 것으로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과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공이 한국사인자라 답사를 많이 다니는 필자는 요즘 답사를 가서는 즐거움보다는 실망을 할 때가 더 많다. 수많은 문화 유산들이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무지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과 멎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文化市長’ 을 기대하며

으로 어우러진 시골집의 분위기는 어디로 가고 이를 모시는 사당을 중심으로 성역화 되어버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광주천 자연형하천문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말은 자연친화적인 문화천을 만들기 위한 마을의 정자나 고가(古家) 등을 관의 지원 부족과 후손들의 인식 부족으로 계속 쇄해가고 있는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대형 유적지와 문화적 불거리는 본래의

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복원된 청계천에 가서 느낀 실망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흥물스럽고 가도로 매연차량보다 낮겠지만 하천의 양 벽과 바닥 할 것 없이 불풀없는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는 모습에서 과거 청계천의 정취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청계천이 멋있고 아름답게 복원됐다고 아�법석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도 높아진다. 그래서인지 지방자치단체들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유적지와

멋과 맛을 살려놓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시설이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5·18과 관련한 기억뿐이다. 광주의 수백 년 역사를 간직한 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땅 밑으로 들어갔던 읍성(邑城)의 잔해들은 헛빛을 보기는커녕 문화전당이 완성되면 오히려 영원히 사라질 판이다.

뿐만 아니라 5·18과 함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 무대이기도했던 금남로와 충장로는 그 어디에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표지판 하나 없다. 그만큼 광주의 역사에 대한 기억의 편식은 심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의 편식은 잘못된 문화 인식을 갖게 한다.

이제 지방선거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새로 뽑은 광주시장은 진정 문화의 멋과 맛을 아는, 그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남보란 듯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광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이철건



최근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우려와는 달리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산 쌀(칼로스) 4차 공매에서는 나찰자가 없어 팔리지 않았지만 3차까지 공매된 쌀들은 생산자 단체의 반발 때문에 대부분 도매상을 거쳐 동네 슈퍼나 인터넷 경매를 통해서 음식점이나 단체 급식소 등에 공급되어 대량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로서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구분이 밥을 지어 놓으면 사실상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수입쌀로 지은 밥인지 국산쌀로 지은 밥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식당에서

한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쓰는 식재료의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원산지표시의 무 규제인 경우 있다.

이 때문에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

그동안 공급된 수입쌀이 밥을 해놓으면 찰기가 없고 냄새가 난다면 일부 반품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쌀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몸에 우리 쌀이 좋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5천 년을 농경

식당 쌀 원산지표시 의무화 해야

쓰는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하루빨리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우리쌀의 소비 패턴 조사에 따르면 식생활의 60%가 외식에 의존할 만큼 가정보다는 밖에서 먹는 기회가 많은 만큼 음식점에서 먹는 쌀의 원산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고 소비도록 소비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 말부터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 그리고 농협과 농민, 소비자 단체에서는 쌀과 김치, 육육(소·돼지·닭·오리 등)을 중심으로 국산만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상으로 ‘원산지 자율표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고 하니 무척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문화와 함께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쌀의 우수성이 대한 자부심 또한 크다.

하지만 밥쌀을 수입쌀의 저가 유통 공세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계속 놓아서는 되겠다.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는 것도 중요 하지만 국내 쌀의 친환경농법 등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의 입맛에 가깝게 다가설 때 깊은 수입쌀보다는 우리쌀을 사먹을 것이다.

그리고 식량주권과 환경을 보호하는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의 꿈과 하고 혁명한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공인 농산물 품질관리사·농신보 해남센터 지점장>

키크기 체조, 초등 학교에서 적극 시행했으면

키 크기 체조가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체조인지 춤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동작들이 많아 아이들이 쉽게 흥미를 느낀다는 얘기도 들었다.

키 크기 체조는 별다른 준비 없이 아무데서나 할 수 있고 불과 몇 분의 체조로 어린 이들의 신체발달을 돋는다고 하니 학부모로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솔직히 요즘 아이들은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영어 등 각

종 학원에 가야 하고 집에 와서는 숙제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는 게 대부분 아이들의 일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곳에서 키 크기 체조를 배울 수 있느냐 알아봤더니 일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등에 불과, 배우기도 어려운 것 같다.

초등학교에서 수업 전이나 수업 후 전교생이 일제히 음악반에 맞추어 키 크기 체조를 할 수 있도록 체조 시간을 할애해 주면 어떨까.

▲오미영·목포시 해안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민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오피니언]

시설

총체적 공권력 不在가 야당총재 피습 불렀다

지난 주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유세도중 피습당한 사건은 국민을 경악케 한 악마적 테러행위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진상조사를 당부했고 한명숙 총리의 지시로 검경 합동조사반이 구성된 만큼 조만간 범행의 구체적 동기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대로 50대 사회불만분자의 우발적 범행이건, 아니면 이당총수에 대한 백주 정치데려건 간에 이같은 꼽을 범죄가 백주에 벌어지는 우리사회의 치안을 먼저 한탄할 수밖에 없다. 문명국가의 치안은 공공의 안녕을 위한 국가 공권력의 효과적인 집행에 기초한다. 그러나 자금의 우리사회는 국민으로부터 물리력을 위임받은 공권력이 불법과 폭력 앞에 그 실효(實效)를 의심해 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미군기지 반대시위현장에서는 시위대가 군사보호구역 침범을 끊고 들어가 경찰도 아닌 군을 폭행하는가 하면,

반년 다 돼서야 “5% 성장 어렵다”는 정부

재정경제부가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하반기 이후 성장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임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성장을 전망치를 4%대 중·후반으로 낮춘지 오래다. 정부만 연초부터 낙관론을 고집하다 6개월이 다 돼서야 경기하강 위험을 언급한 것이다.

경제 전망이 예상을 빗나간데는 정부 당국이 각종 경제 변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한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원·달러 평균 환율을 1010원, 두바이유 가격을 비탈당 54달러로 잡았었다. 그러나 환율은 930원대가 위협받고 있으며 국제유가는 7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터무니없는 예측을 토대로 수립된 경제정책이 제대로 집행될리 믿지 않는다. 더욱 달갑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

응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유가와 환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재정경제부는 이제서야 경기 후퇴 가능성에 높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정부가 앞장서 확산시키고 있는 ‘부동산 버블 붕괴론’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정부 주장대로 부동산 버블이 급격히 붕괴될 경우 내수 시장의 급격한 침체는 불을 보듯 뿐하다. 내수를 살려 성장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된다.

지금 세계 경제는 국제 원유값 폭등과 달려화 추가 하락위험 등 불안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 내수마저 절어들면 경제 서민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경제 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운용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경기둔화되거나 미리 활성화 정책을 펴야 효과가 크다. 규제혁파와 세제지원 등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집행을 서둘러야 할때다.

無等鼓

‘테러’(terror)라는 말은 ‘겁주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terrere’에서 비롯됐다. 이것이 정치적 용어인 ‘테러리즘’이란 말로 처음 등장한 것은 1798년 프랑스 혁명이 발간한 사전에서다. 이 말은 프랑스 혁명 말기 왕권복귀를 꾀하는 사나이들이 왕당파에 대한 자고뱅당의 ‘공포정치’를 상징했다.

자고뱅당 테러리즘 정치의 종말은 모두의 비극으로 귀결됐다. 길로틴(단두대)을 만들었던 자고뱅당은 테러의 역순환에 의해 길로틴의 희생자가 됐다. 공포정치의 상징, 로베스피에르의 단두대 행은 최종 결정판이었다. 이처럼 테러는 낙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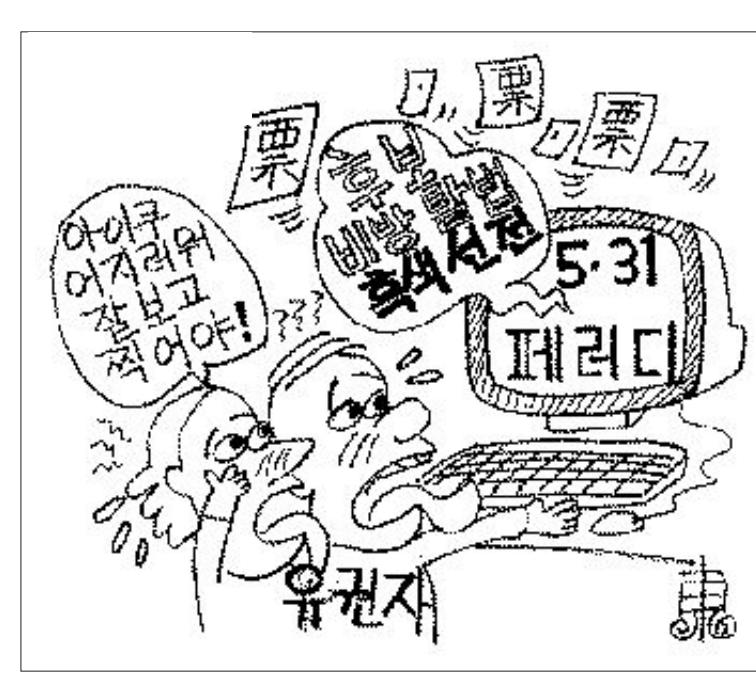
테러의 개념도 많이 변했다. 특정 정파, 특정인을 목표로 했던 전통적 테러는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변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서는 안되는 명·종교간 이교도들은 인정 전체를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테러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독자마당

票心 잡기

(사이버 선거 테러 극성)



▲김동국·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편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6 여론분석부 2200-628 <F A X 220-521>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63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7-9500>

<F A X 222-4267> 디자인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시 앱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광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시 앱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